

## 2021 YWCA 여성평화선언문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

2021년은 광복 76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3년이 경과된 해이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및 ‘남북 UN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 핵 위협 등 불안요소가 남아 있고,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화’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집단적·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이며,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창립 100년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는 YWCA는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WCA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I.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상생과 공존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I.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북의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 물결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 I.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021년 10월 14일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례자 일동>